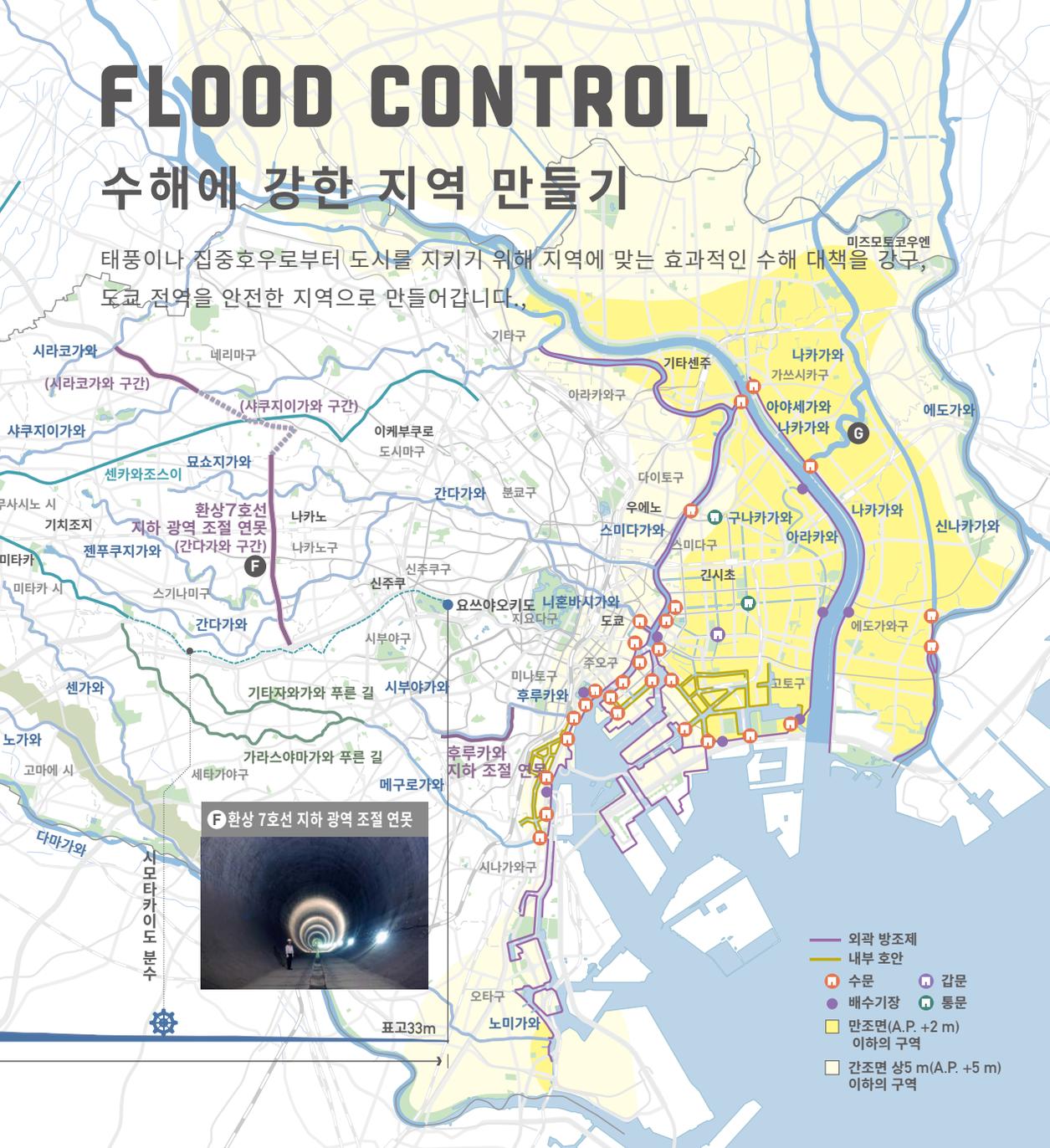


FLOOD CONTROL

수해에 강한 지역 만들기

태풍이나 집중호우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수해 대책을 강구, 도쿄 전역을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갑니다.



COMMENT » TAKAAKI KATO

가토 타카아키 도쿄대학 생산기술연구소 준교수

지진 방재를 기본으로 기후 변동에 따른 수해의 위험을 줄이는 도시 나 거리의 조성에 대해 연구. 박사(공학)

수해위험과 현명하게 공존하는 친수(親水)도시로

에도시대의 도네가와로의 이주, 1911년에 시작된 아라카와 방수로의 개삭 등 지금까지는 기술력으로 수해 리스크를 확실히 제어해 왔다. 그리고 지금은 기후 변동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향후 침수 리스크를 높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광대한 해발 제로 미터 지대의 시가지인 도쿄는 침수 리스크가 높다. 그러나 한편 물과의 공존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풍족한 문화가 배양되어 왔다. 다음 시대를 향해 도쿄의 수변 공간을 재검토, 하천과 시가지의 관계성을 재고해야 한다. 축복과 위험이라는 두 얼굴의 수해 리스크와 영리하게 공생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향후의 방향성이다. 이것은 세계 유일한 기후 변동의 적응 모델이 될 것이다.

NO IMAGE

⑥ 석양에 물드는 나카가와와의 나나마가리

제공: [나카가와와의 나나마가리], 주니치 신문사